

### 호주 AUSTRALIA



#### ‘여성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한 2024-2025 예산안 발표

조혜인 모나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호주 정부는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위기(national crisis)라고 명명해 왔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과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해온 바 있다. 특히 최근 호주 전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4월에 1명꼴로 여성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정부를 향한 더욱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2024년 4월 28일 현 호주 연방정부의 안토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수도 캔버라에서 개최된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 시위 주최 측은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긴급사항(National emergency)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알바니즈 총리는 긴급 선언은 산불 등 자연재해에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적 위기로 다루어져야 할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알바니즈 총리는 이 문제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정부 차원의 노력보다는 호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 알바니즈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젠더폭력 관련 기관의 관계자 및 여당 등에서는 정부가 이미 많은 예산을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 이후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2024년 5월 14일 호주 연방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고,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 장관(재정부, 여성부 장관 겸임) 또한 이 예산의 가장 큰 사용 목적은 여성의 안전(women's safety)이라고 강조하였다.

#### 참고자료

- ABC News (2024.4.28.), "Anthony Albanese tells rally gendered violence is 'a problem of our entire society'", <https://www.abc.net.au/news/2024-04-28/pm-addresses-domestic-violence-rally/103777324> (접속일: 2024.4.29.).
- ABC News (2024.5.13.), "One of the budget papers will be all about women. Here's what you need to know", <https://www.abc.net.au/news/2024-05-13/womens-budget-statement-explained/103839216> (접속일: 2024.5.13.).
- Australian government (2024.5.14.), Women's Budget Statement, <https://budget.gov.au/content/womens-statement/download/womens-budget-statement-2024-25.pdf> (접속일: 2024.5.14.).
- Australian government (2024.5.14.), Cost of living help and a future made in Australia, <https://budget.gov.au/content/overview/download/budget-overview-final.pdf> (접속일: 2024.5.13.).

연방정부는 정부 예산서에 “The Women’s Budget Statement”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으며, 젠더폭력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시행을 위한 직·간접 예산을 약 2조 65억 원가량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책정하였다.

- 향후 5년간 젠더폭력 관련 프로그램(The Leaving Violence Program) 지원(한화 약 925억 원) (2025년 7월부터 시행)
- 호주 국립 여성 안전 연구 기구(ANROWS)의 증거 기반 연구(evidence-based research) 지원(한화 약 38억 원)
- 여성부 내 여성 안전 자원 확보 및 활동 지원(한화 약 350억 원)
- 가정,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유 아웃리치(현장 지원 활동) 사업비 및 긴급 숙소 지원(한화 약 53억 원)
- 젠더 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학 교육 과정 지원(한화 약 17억 원)
- 가정폭력 피해자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 등의 비자 소지자) 대상 긴급 지원(한화 약 60억 원)
- 향후 4년간 강제 결혼 (forced marriage) 관련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스피크 나우(Speak Now)’ 지원 (한화 22억 원).

호주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해결이 주요 국정과제로 언급됨은 환영하고 있으나, “The Women’s Budget Statement”의 내용이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해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신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기존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던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의 경우 신규 예산이 배정되기는 했지만, 동일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으며 여전히 소액 지원(약 5,000호주달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다른 한계로 나타나는 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으면, 주 부양자로부터 입은 젠더폭력 피해에 대해 가정폭력 전문 서비스 기관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인 센터링크 (Centrelink) 혹은 국가장애 보험계획(NDIS)와 같은 일반 서비스 기관 혹은 장애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사회 보장 제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피해 지원 절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2024-2025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2024년 5월에 발표되었으므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질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예산의 집행 내역과 이와 관련한 정책 실효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비동의 강간죄’ 관련 제도적 논쟁

곽 서 회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 프랑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을 '폭력, 강압, 위협, 급습과 같은 방식으로 타인에 의해 성관계를 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합의 여부는 법적으로 정의하는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프랑스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단, 프랑스에서는 형법에 의거하여 만 15세 이하 아동과의 성관계의 경우, 합의 여부 상관없이 불법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프랑스의 비동의 강간죄 관련 제도적 논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024년 5월 프랑스에서는 정치, 언론, 정치, 문학, 연예계 등 140명이 넘는 인사들이 프랑스 정부의 포괄적인 성폭력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서명 및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프랑스 정부가 그동안 지속되어온 미투(#MeToo) 운동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실패했고, 사회적으로 성차별주의 및 성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 사법제도는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입장문에서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더라도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만연하다면서, 2022년 성폭력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율이 무려 94%에 달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성폭력방지법 제정을 통해 비동의 강간죄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재판에 세울 것과 보다 강력한 처벌 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확대, 전문 수사 인력 확대 등을 촉구했다.
- 프랑스 대표 일간지 중 하나인 르 몽드(Le Monde)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사법부의 통계상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2017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2017년 960여건에서 2022년 1,260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성폭력으로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아직도 적은 편인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법적 조항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비동의 강간죄 조항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3월 8일, 임신중지에 관한 자유를 헌법에 포함하는 헌법 개정 관련 행사에서 이를 언급했다. 이후 여러 국내외 언론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이 유럽연합법상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정의하는 조항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회원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 Euractiv (2024.3.14.), "France's Macron faces backlash over U-turn on legal definition of rape", <https://www.euractiv.com/section/health-consumers/news/frances-macron-faces-backlash-over-u-turn-on-legal-definition-of-rape/> (접속일: 2024.5.20.)
- Euractiv (2024.2.1.), "Minister of Justice clarifies France's position over rape inclusion in EU directive", <https://www.euractiv.com/section/justice-home-affairs/news/minister-of-justice-clarifies-frances-position-over-rape-inclusion-in-eu-directive/> (접속일: 2024.5.20.)
- The Guardian (2024.5.14.), "Impunity is growing: French celebrities call for law to crack down on sexism and sexual violence", <https://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may/14/french-celebrities-law-crackdown-sexism-sexual-violence> (접속일: 2024.5.20.)
- Le Monde (2024.3.14.), "Macron promises to add 'consent' to France's rape law",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4/03/14/macron-promises-to-add-consent-to-france-s-rape-law\\_6617206\\_7.html](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4/03/14/macron-promises-to-add-consent-to-france-s-rape-law_6617206_7.html) (접속일: 2024.5.20.)
- Le Monde (2024.3.19.), "The debate over adding consent to France's legal definition of rape",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4/03/19/the-debate-over-adding-consent-to-france-s-legal-definition-of-rape\\_6632673\\_7.html](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4/03/19/the-debate-over-adding-consent-to-france-s-legal-definition-of-rape_6632673_7.html) (접속일: 2024.5.20.)

- 2024년 2월 1일, 프랑스 상원 내 여성권익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었다. 본 청문회에서 에릭 듀퐁-모레티(Éric Dupond-Moretti) 사법부 장관(Minister of Justice)은 유럽연합의 젠더기반폭력 관련 법 내 성폭력 조항에서 합의 여부를 포함하는데 프랑스 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두고 "비동의 강간죄 조항에 반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권한(competence) 범위와 행사에 대한 관점에 입각하여 내린 입장이며, 일각에서 프랑스가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성폭력 문제에 있어 법적으로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 반면 듀퐁-모레티 장관은 제도적 틀에서 합의 여부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형사법의 법적 역할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법 조항에 합의 여부의 개념을 포함하게 되면, 성관계를 지나치게 계약관계처럼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위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러한 듀퐁-모레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세린 앙투완(Jocelyne Antoine) 상원의원은 합의 여부를 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반박했다.
- 이 밖에도 프랑스에서 선출된 유럽의회 나탈리 콜랑-우스털리(Nathalie Colin-Oesterlé) 의원은 "합의가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위해 2년여간 내부적으로 고군분투해왔다. 현 프랑스 정부는 형법에 합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알고 보면 피해자를 그런 논리를 펼치는 수단 정도로만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멜라니 포겔(Mélanie Vogel) 상원의원은 유럽연합의 법안 통과에 반대한 마크롱 대통령이 갑자기 한 달 만에 정반대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냉소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위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프랑스 정부가 시민사회의 포괄적 성폭력 방지법 제정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형법에 비동의 강간죄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프랑스 정부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학교 체육활동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도입

임 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2023년 3월 “학교 체육활동에서의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in School Sport)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주로 학교 내 체육활동에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책으로, 영국축구협회에서 축구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여성 청소년의 축구 참여율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LetGirlsPlay 캠페인이 성공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 유럽 여성축구 대회에서 영국이 첫 우승을 거두면서, 해당 캠페인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세계 여성의 날에 리시 수낙 총리(Prime Minister Rishi Sunak)는 영국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과 동등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2024년 3월에는 해당 정책의 개정안이 소개되는 등 여성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학교 체육활동에서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in School Sport)” 정책 개요

- 영국에서 아동 비만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영국의 최고의료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는 청소년들에게 하루에 최소 60분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아동비만계획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루에 최소 30분 신체활동을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기 좋은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체육활동 시간을 확보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 청소년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영국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 영국 정부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약 6억 파운드(한화 약 1조 384억 원)를 2년간 전국의 학교에 지원한다. 해당 정책은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일주일에 2시간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체육 수업 개발, 지도자 인력 양성, 학교 체육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예산, 필수 수준 안전 수업인 수영 수업 수료 대상 중 추가 수업이 필요한 학생 대상 수업료 지원 등 체육활동 전반에 걸친 모든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사안의 핵심은 청소년 신체활동 증가와 더불어 체육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 청소년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남성 청소년과 동일한 참여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다.

### 참고자료

- GOV UK (2024.03.23.), “New PE guidance for schools strengthens equal access to sport”,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pe-guidance-for-schools-strengthens-equal-access-to-sport> (접속일: 2024.05.18.)
- GOV UK (2024.03.25.), “How we are ensuring boys and girls have the same opportunities for school sport”, <https://educationhub.blog.gov.uk/2024/03/25/how-ensuring-boys-girls-have-same-opportunities-school-sport/> (접속일: 2024.05.18.)
- GOV UK (2023.03.08.), “School sports given huge boost to level the playing field for next generation of Lioness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school-sports-given-huge-boost-to-level-the-playing-field-for-next-generation-of-lionesses> (접속일: 2024.05.18.)
- GOV UK (2023.10.06.), “PE and sport premium for primary schools”, <https://www.gov.uk/guidance/pe-and-sport-premium-for-primary-schools> (접속일: 2024.05.19.)
- HM Government (2023.07.), “School Sport and Activity Action Pla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4b7c813ef5371000d7aee6c/School\\_Sport\\_and\\_Activity\\_Action\\_Plan.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4b7c813ef5371000d7aee6c/School_Sport_and_Activity_Action_Plan.pdf) (접속일: 2024.05.19.)

## 2024년 정책의 주요 강화/개정 사항

- 영국 정부는 해당 정책이 도입된 지 1년 후인 2024년 3월에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정책에서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육시간을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진행할 것을 권하는 등 개괄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에는 여성 청소년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첫째, 체육 수업시간에 여성 청소년이 참여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체육 시간에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성 선생님이 하거나, 여성 청소년이 서로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활동으로 구성하면 이들이 편안하게 체육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둘째,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지도자를 교육할 때, 여성과 남성 청소년 모두를 참여시키는 관점에 대해 강조할 것을 권고한다. 교사와 지도자가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일부 체육활동에서 배제하고, 남성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지도자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성평등에 대해 강조할 것을 장려한다.
- 마지막으로, 여성 청소년들에게 롤모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여성 체육선생님의 채용을 늘릴 것을 독려한다. 특히, 2022년 여성 유로컵에서 영국 여성 축구팀이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축구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교실 내에서도 여성 체육선생님을 보면서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체육인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다고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개정안에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성 운동회나 여성 운동선수 초청강연과 같이 여성 청소년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교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이 앞으로 여성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율 제고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